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한선엔지니어링(45228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엔지니어링(452280)

정밀 유체제어 기술 기반으로 고부가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피팅·밸브 전문기업

기업정보(2026.10.13 기준)

대표자	이제훈
설립일자	2012년 2월 22일
상장일자	2023년 11월 24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계측장비용(계장용)
주요제품	피팅, 밸브 및 플러밍 등

시세정보(2026.10.13 기준)

현재가(원)	12,55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416
발행주식수	19,247,670주
52주 최고가(원)	37,300
52주 최저가(원)	7,840
외국인지분율	0.49%
주요주주	한국선재 외 3인

■ 산업용 계장 피팅·밸브 기반으로 고부가 유체제어 시장으로 확대 중

한선엔지니어링(이하, '동사')은 자체 브랜드 기반으로 튜브 피팅, 각종 밸브, UHP 피팅·밸브, 플러밍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정유·석유화학, 오일·가스, 조선·해양 등의 산업에 적용되는 계장용 피팅·밸브이며, 튜브 피팅이 주력 사업이다. 최근 반도체용 UHP 제품, 수소·연료전지용 피팅·밸브 및 모듈, ESS용 유체제어 부품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계장용 피팅·밸브 사업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유지하며 고부가 응용시장에서 공급실적을 확대하는 것이 성장 방향이다.

■ 고신뢰성·고청정 요구 확대와 전방산업 설비투자로 고도화되는 시장

목표시장은 정유·석유화학, 오일·가스, LNG, 조선·해양 및 발전설비의 계측·제어 배관에 적용되는 정밀 유체제어 부품 시장으로, 신규 설비투자 및 유지보수·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높은 품질·안전성, 인증 및 공급자 승인체계가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최근 LNG 설비투자 확대와 반도체 생산능력 증설이 계장용 피팅·밸브와 UHP 제품 수요를 뒷받침하고, 수소·연료전지 및 ESS 분야에서는 고압·고청정·고신뢰성 제품과 모듈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반도체 UHP·수소·연료전지·ESS 및 모듈 사업으로 성장축 확대

동사는 반도체 UHP, 수소·연료전지, ESS 및 모듈 사업을 보다 구체적인 성장축으로 확장하고, 신축공장 사용승인과 기업부설연구소 확대 등을 통해 생산·연구개발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고청정·고압 제품과 플러밍·소화설비 모듈 등 시스템 단위 공급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고, 산업별 인증과 해외 벤더 등록도 확대하고 있다. 향후 LNG·정유·석유화학·조선·해양의 프로젝트 및 MRO 수요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반도체 UHP, SOFC 중심의 수소·연료전지, ESS용 유체제어 부품과 모듈의 고객 채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성장요인이 될 전망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477.5	16.6	61.9	13.0	45.4	9.5	12.0	7.1	31.4	345	3,230	26.9	2.9
2024	485.4	1.7	49.2	10.1	41.6	8.6	7.3	5.5	34.0	244	3,440	25.3	1.8
2025	632.2	30.2	97.5	15.4	89.4	14.1	14.0	8.1	105.7	518	3,957	16.5	2.2

기업경쟁력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유체제어 제품 포트폴리오	• 계장용 피팅·밸브를 중심으로 반도체 UHP, 수소·연료전지, ESS, 조선·해양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확보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사업구조 보유
인증·납품실적에 기반한 공급망 진입 역량	• 선급, KGS·KCS, UL, CRN 등 산업별 인증과 국내외 에너지·조선·수소 분야의 공급경험을 축적해 고객 승인과 벤더 등록이 중요한 시장에서 신규 수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확보
단품에서 모듈로 확장 가능한 사업화 역량	• 피팅과 밸브를 개별 부품으로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소·연료전지용 플러밍 모듈과 ESS 관련 모듈까지 공급범위를 넓히며 제품당 부가가치와 고객 접점 확대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정밀 피팅 체결·가공 기술	• 정밀가공과 페럴·나사 검사, 스웨징 기술을 통해 튜브와 피팅을 안정적으로 밀폐·체결하는 기술로, 석유화학·조선·에너지 등 산업용 계장배관에 적용
고압·극저온 대응 밸브 설계 기술	• 유체의 압력과 온도 조건을 고려한 유로·시트·밀폐구조 설계와 성능검증 기술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수소 및 조선·해양용 고신뢰성 밸브를 개발 및 생산
UHP 고청정 제조기술	• 전해연마, 고청정 세정 및 특수용접 기술을 적용해 반도체 특수가스 배관에 요구되는 청정도와 오염관리 수준에 대응하는 UHP 피팅·밸브 제조

시장경쟁력

프로젝트와 MRO가 결합된 안정적인 수요 기반	• 정유·석유화학, LNG, 조선·해양 등에서는 신규 설비투자뿐 아니라 유지보수·교체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기존 계장용 피팅·밸브 사업에 지속적인 수요 기반 제공
반도체·수소·ESS 등 성장시장으로 적용처 확대	• 기존 유체제어 기술을 반도체 UHP, 수소·연료전지 및 ESS에 적용하여 전통산업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고청정·고압·고신뢰성 제품 수요가 높은 신산업으로 고객 기반 확대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응 가능한 시장 접근성	• 국내외 EPC 업체와 에너지 기업, 조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축적한 벤더 등록과 납품실적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및 신규 산업 고객으로 공급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영업 기반 보유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 정밀 피팅·밸브 설계·가공, UHP 고청정 제조 및 배관 모듈 기술은 다양한 산업의 안전·청정·고압 유체제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사업적 가치가 높다.	 희소성(Rarity) • 산업별 요구조건에 맞춘 설계부터 고청정 세정·전해 연마, 초고압·극저온 대응, 모듈 조립 및 인증까지 폭넓게 확보한 역량은 범용 부품 제조사보다 차별화되나, 절대적으로 희소하진 않다.	 모방가능성(Imitability) • 제품은 모방 가능하나, 장기간 축적된 정밀가공·품질관리 노하우, 선급, 산업별 인증, 고객 승인 및 납품실적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단기간 모방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Organization) • 연구소와 자체 생산·품질관리 체계, 영업조직 및 인증·벤더 등록 기반을 갖추고 있어 보유 기술과 시장 접근 역량을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	--	---	---

I. 기업 현황

산업용 계장 피팅·밸브 기반으로 고부가 유체제어 시장으로 확대 추진 중

동사는 자체 브랜드를 기반으로 튜브 피팅, 각종 밸브, UHP 피팅·밸브, 플러밍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정유·석유화학, 오일·가스, 조선·해양 등의 산업에 적용되는 계장용 피팅·밸브이며, 튜브 피팅이 주력 사업이다.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생산되고, 정밀가공·품질관리·인증 역량과 국내외 프로젝트 납품 이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용 UHP 제품, 수소·연료전지용 피팅·밸브 및 모듈, ESS용 유체제어 부품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판매는 공급업체 등록과 납품실적을 기반으로 신규 프로젝트와 MRO 수요를 확보하는 구조이다. 향후 계장용 피팅·밸브 사업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유지하며 고부가 응용시장에서 공급실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성장 방향이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12년 2월 설립된 산업용 유체제어 부품 제조기업으로, 2023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계측·제어용 배관에 사용되는 피팅(Fitting), 밸브(Valve), 플러밍(Plumbing) 제품을 자체 브랜드인 S-LOK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조선·해양, 오일·가스, 방위산업, 반도체, 수소·연료전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정밀한 유체 제어가 필요한 산업을 주요 전방시장으로 확보하고 있다. 계장용 피팅과 밸브는 주 배관 주변에서 유체를 연결·분기·차단·조절하거나 설비 상태를 계측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데 사용되므로, 고압·고온·초저온 및 부식성·고순도 유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밀도와 내구성이 요구된다.

동사는 튜브 피팅을 중심으로 UHP(Ultra High Purity, 초고순도) 피팅, 유체 차단 밸브, 유체 조절·보호 밸브, 스페셜 밸브, UHP 밸브, 플러밍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튜브 피팅이 핵심 제품에 해당하고, 모듈 제품은 매출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UHP 피팅·밸브는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나 반도체용 고청정 유체제어 제품이라는 점에서 성장 제품군으로 볼 수 있다.

생산은 부산 소재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26년 상반기 기준 피팅, 밸브 및 UHP 피팅·밸브 생산설비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별로 상이한 규격과 소재 및 사용환경에 대응하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원재료는 스테인리스강과 황동 등이 중심이며, 원재료 가격은 니켈·구리·철·크롬·폴리브덴 등 금속 시세의 영향을 받으므로 소재 가격 변동은 제조원가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사는 다양한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밀 유체제어 제품군과 품질·인증 대응 역량, 국내외 프로젝트 납품 이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이다. 조선·해양에서는 선급 인증,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는 벤더 등록과 프로젝트 수행실적, 반도체에서는 고청정 생산환경과 UHP 제품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2012.02	법인 설립
2019.08	소재, 부품, 장비산업 전문기업 인증
2021.10	Bloom Energy & SK Bloom Fuel Cell Korea 1차벤더 등록
2022.02	오만 PDO 벤더 등록
2022.06	EC-79 및 KGS 수소 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인증 획득
2023.11	코스닥 시장 상장
2024.11	콜롬비아 ECOPETROL 협력 업체 등록
2025.04	SOLBV SERIES BALL VALVES UL 인증 획득
2025.08	아랍에미리트 ADNOC 벤더 등록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기술 등 산업별 진입요건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정유·석유화학 및 조선·해양 중심의 수요 기반을 유지하며 수소·연료전지, 반도체 및 ESS로 적용 분야를 넓히고 있어, 향후 성장 방향은 단순 피팅·밸브 공급에서 고청정 제품과 플러밍·모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유체제어 솔루션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데 맞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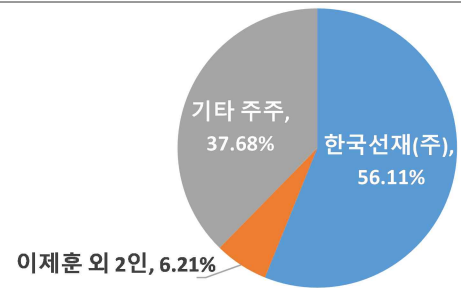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7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한국선재(주)로, 전체 발행주식(19,247,670주) 중 10,800,0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56.11%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제훈 외 2인의 특수관계자가 1,195,111주(6.21%)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62.32%이다. 한편, 나머지 7,252,559주(37.68%)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한국선재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을 합산하면 지배주주 측 지분율이 60%를 상회해 경영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이다. 다만 2026년 상반기 전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희석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주식연계증권 행사 여부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이제훈 및 이정훈 보유주식 중 373,569주에 주식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으며, 2026년 7월 말 기준 담보계약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1.94% 수준이다. 지배주주의 높은 지분율은 장기적인 경영전략 추진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반면, 소유와 경영이 특정 주주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 및 독립이사를 통한 견제 기능과 일반주주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한국선재(주)	10,800,000	56.11%	최대주주
이제훈 외 2인	1,195,111	6.21%	특수관계인
기타 주주	7,252,559	37.68%	
합계	19,247,670	100.00%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7),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핵심 사업은 산업용 계장 배관에 사용되는 피팅과 밸브 제조사업이다. 튜브 피팅은 용접이나 별도의 나사 가공 없이 페럴(Ferrule), 바디 및 너트를 기계적으로 체결해 배관을 연결하는 제품으로, 배관의 연결·방향 전환·분기 및 유로 크기 조절에 사용된다. 밸브는 볼밸브·니들밸브·매니폴드·릴리프밸브 등의 형태로 유체의 차단과 유량 조절, 압력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동사의 기존 주력 수요처는 정유·석유화학, 오일·가스, 조선·해양 및 플랜트 산업이며, 신규 설비투자 외에도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교체·증설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성장 사업은 반도체용 UHP 피팅·밸브와 수소·연료전지 및 ESS용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도체용 UHP 제품은 초고순도 공정가스가 오염되지 않도록 소재의 내면 조도, 세정도 및 용접·밀폐 성능을 관리해야 하는 제품으로 일반 산업용 피팅보다 높은 청정도 관리가 요구된다. 수소 분야에서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수소차 및 수소 인프라에 적용되는 피팅·밸브와 플러밍 모듈을 공급하고 있으며, ESS 분야에서는 배터리 랙 및 직분사 소화시스템의 소화약제 이송·분사·제어 계통으로 적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모듈 사업은 개별 피팅과 밸브를 배관 및 기타 부품과 결합해 하나의 기능 단위로 납품하는 사업으로, 개별 부품 공급에서 조립·설계 범위까지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2026년 상반기 모듈 매출 비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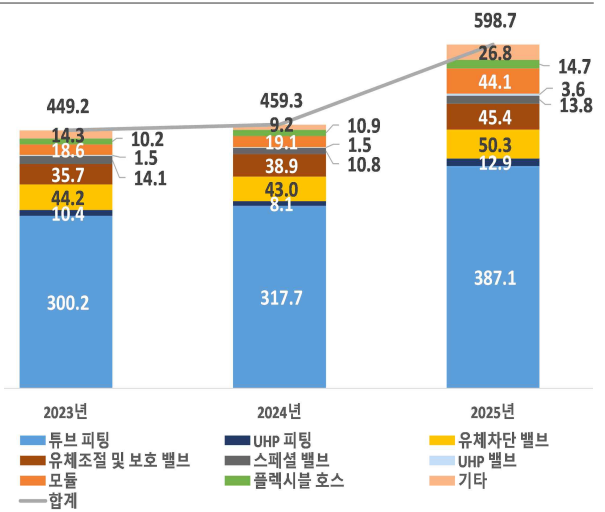
14.3%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제품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튜브 피팅 중심에서 밸브, UHP 제품 및 모듈로 점진적으로 다변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2026년 상반기에도 튜브 피팅이 가장 큰 제품군이므로 현재의 수익 기반은 여전히 범용 계장용 피팅·밸브 사업에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2026년 정관에 태양광 발전·판매업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신축 공장의 법정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잉여전력 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부수적 사업으로, 별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은 기존 계장용 피팅·밸브에서 안정적인 프로젝트 및 유지보수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반도체 UHP, 수소·연료전지 및 ESS용 모듈과 같이 품질·청정도·안전 요구가 높은 응용시장으로 제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표 3] 동사의 제품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튜브 피팅	300.2	66.9%	317.7	69.2%	387.1	64.7%
UHP 피팅	10.4	2.3%	8.1	1.8%	12.9	2.1%
유체차단 밸브	44.2	9.9%	43.0	9.3%	50.3	8.4%
유체조절 및 보호 밸브	35.7	7.9%	38.9	8.5%	45.4	7.6%
스페셜 밸브	14.1	3.1%	10.8	2.4%	13.8	2.3%
UHP 밸브	1.5	0.3%	1.5	0.3%	3.6	0.6%
모듈	18.6	4.1%	19.1	4.1%	44.1	7.4%
플렉시블 호스	10.2	2.3%	10.9	2.4%	14.7	2.4%
기타	14.3	3.2%	9.2	2.0%	26.8	4.5%
제품 매출 합계	449.2	100.0%	459.3	100.0%	598.7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영업은 일반 소비재 판매보다 고객사 사전승인과 프로젝트 입찰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프로젝트형 영업의 성격이 강하다. 2026년 상반기 국내영업 조직은 대기업과 국내 대리점을 대상으로 피팅·밸브·모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영업 조직은 해외 오일·가스 기업에 직접 공급하거나 국가별 대리점을 통해 현지 판매를 관리하고 있다. 별도의 전략영업 조직은 신규 거래처와 신규 품목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판매경로는 대리점 판매, 주요 대기업과 연간 단가계약,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 입찰 및 해외 에너지기업 직접 공급 등이 병행되는 구조이다. 특히 정유·석유화학 및 오일·가스 분야에서는 발주 이전에 벤더 등록과 제품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질 인증과 기존 프로젝트 납품 실적이 신규 고객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로젝트 공급 이후에는 동일 사업장의 교체·보수 수요를 대상으로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유지·보수·운영)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

동사는 고객 대응 측면에서 납기 단축과 가격·품질 경쟁력을 판매전략의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정유, 방산, 발전, 이차전지 및 수소 분야의 공급업체 등록을 확대하고 해외에서는 글로벌 EPC 기업과 오일·가스 기업에 대한 공급자격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대리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규 프로젝트와 MRO 수요를 함께 공략하는 구조이다. 다만 동사의 수주는 장기 확정계약보다 고객의 개별 발주가 중심이므로 프로젝트 일정이나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변동이 단기 매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II. 시장 동향

고신뢰성·고청정 요구 확대와 전방산업 설비투자로 고도화되는 산업용 계장 피팅·밸브 시장

목표시장은 정유·석유화학, 오일·가스, LNG, 조선·해양 및 발전설비의 계측·제어 배관에 적용되는 정밀 유체제어 부품 시장으로, 신규 설비투자 및 유지보수·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높은 품질·안전성, 인증 및 공급자 승인체계가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최근 LNG 설비투자 확대와 반도체 생산능력 증설이 계장용 피팅·밸브와 UHP 제품 수요를 뒷받침하고, 수소·연료전지 및 ESS 분야에서는 고압·고청정·고신뢰성 제품과 모듈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시장의 변화는 동시에 정유·석유화학, LNG 및 조선·해양 분야의 프로젝트와 MRO 수요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반도체 UHP, 수소·연료전지 및 ESS용 제품을 성장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 산업용 계장 배관용 피팅·밸브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산업용 계장 배관용 피팅·밸브 시장으로, 석유·가스 생산 및 처리설비,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LNG 설비, 조선·해양플랜트, 발전설비 등의 계측·제어 배관에서 유체를 연결·차단·분기·조절하는 정밀 부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단순 산업용 밸브 전체 시장보다 제품 범위가 좁으며, 주 배관보다 상대적으로 소구경인 계장 라인의 튜브 피팅, 니들·볼·체크·릴리프·매니폴드 밸브 등이 핵심 제품에 해당한다.

수요는 전방산업의 신규 설비투자와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교체·증설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 및 오일·가스 플랜트는 수십 년간 운영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 프로젝트가 없더라도 정기보수 과정에서 밸브와 피팅의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 LNG 생산·운송설비와 해양플랜트 역시 저온·고압 환경에 대응하는 제품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 관련 플랜트 및 연계 설비의 유체제어 부품 수요 기반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 진입장벽은 단순 가공능력보다 제품 신뢰성과 공급업체 승인체계에서 형성된다. 고압·고온·부식성 또는 가연성 유체를 취급하는 설비에서 누설이나 작동불량은 전체 설비의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소재, 압력 성능, 내구성, 추적성 및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다. 대형 에너지기업과 EPC 업체는 공급자의 기술능력, 품질체계 및 납품실적을 사전에 심사해 승인 벤더를 운영하며,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선급 등 제3자 인증이 공급의 주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한번 확보한 공급자 등록과 프로젝트 레퍼런스는 후속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신규 업체의 초기 시장 진입에는 상당한 기간과 검증비용이 필요하다.

경쟁구도는 글로벌 유체제어 전문기업과 한국·아시아 지역 전문 제조사가 병존하는 형태이고, 제품 규격과 성능뿐 아니라 인증 범위, 납품실적, 글로벌 유통·서비스망 및 납기가 중요한 경쟁요인이다. 범용 제품에서는 가격경쟁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반면, 수소·반도체·특수가스 등 안전성과 청정도 요구가 높은 분야에서는 제품 인증과 공정관리, 소재·표면처리 및 추적성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관련하여 글로벌 계장용 밸브·피팅 시장은 2026년 약 48.8억 달러에서 2032년 약 81.6억 달러로 확대되어 연평균 약 8.9%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 산업용 밸브 시장은 2025년 5조 9,628억 원에서 연평균 6.7% 성장하여 2030년에는 8조 2,47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전통적인 에너지·LNG 설비투자가 계장용 피팅·밸브 수요의 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LNG 산업은 2025~2030년 중 이미 최종투자결정(FID)을 완료하고 건설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액화능력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 LNG 프로젝트는 액화·저장·운송 전 과정에서 다수의 밸브 및 계장 배관을 필요로 하고 LNG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관련 유체제어 부품 업체에 중장기 수요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2026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LNG 설비 피해 사례에서 확인되듯 대형 프로젝트의 가동시점과 투자일정이 외부 변수에 의해 지연될 가능성은 지속적인 위험요인이다.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은 UHP 유체제어 부품시장의 주요 성장요인이다. 반도체 공정은 고순도 특수가스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규 팹(Fab) 건설과 생산라인 증설 과정에서 가스 공급설비 및 클린룸용 UHP 피팅·밸브 수요가 동반된다. SEMI(반도체 장비 재료 국제 협회)의 2026년 3분기 전망에서는 글로벌 300mm 전공정 팹 장비투자가 2026년 약 1,4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고 2029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AI용 로직과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메모리)을 중심으로 생산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은 반도체용 고정정 피팅·밸브의 수요 기반에 긍정적이나, 반도체 설비투자의 높은 경기순환성과 고객별 품질승인 기간은 매출 확대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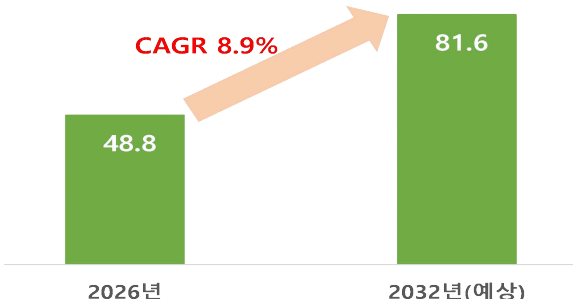
수소 시장은 장기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예상보다 투자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저탄소 수소는 정유·화학뿐 아니라 발전, 운송 및 산업용 연료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될 잠재력이 있으나 높은 생산비용, 수요처 부족, 인프라 구축 지연 및 정책 불확실성이 실제 프로젝트 진행을 제약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발표된 저배출 수소 생산 프로젝트의 2030년 잠재 생산량은 연간 3,700만 톤으로 전년 전망의 4,900만 톤에서 하향됐으며, 절반가량의 발표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가동시점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수소용 피팅·밸브 시장은 중장기적 기술 대응 필요성은 높지만 단기적으로 높은 수요 변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기술적 요구는 범용 연결·차단 기능에서 고정정·고압·고신뢰성 및 모듈화 방향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에서는 UHP 가스의 오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와 세정, 수소에서는 고압 환경의 밀폐성과 안전성, ESS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화약제 공급을 위한 유로 제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피팅 단품뿐 아니라 밸브, 배관 및 기타 부품을 사전 조립한 모듈과 고객별 유체제어 시스템으로 제품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품 이력과 품질 추적성, 제3자 인증 및 공정 자동화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LNG, 정유·석유화학, 조선·해양 분야의 신규 투자와 유지보수 수요는 동사의 계장용 피팅·밸브의 기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반도체 UHP, 수소·연료전지 및 ESS 분야의 확대는 고부가 제품과 모듈 중심으로 제품구성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다. 반면 주요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지연, 수소 프로젝트의 불확실성, 장기간의 고객 승인절차 및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은 성장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림 1] 글로벌 계장용 밸브·피팅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국내 산업용 밸브 시장

(단위 : 억 원)



자료: Research and Markets,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정밀 유체제어 기술과 산업별 인증·연구개발 역량 기반의 기술 경쟁력 보유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산업용 배관의 유체를 안정적으로 연결·차단·조절하기 위한 정밀 유체제어 기술에 기반한다. 정밀가공과 자동검사·스웨징 기술을 통해 피팅 체결 품질의 재현성을 높이고, DBB 밸브·안전 밸브·초고압 및 극저온 밸브 등을 통해 다양한 압력·온도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해연마·고청정 세정·특수 용접 등을 적용한 UHP 제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제품 안전성과 생산 자동화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ISO 품질·환경·안전보건 인증과 주요 선급, KGS·KCS, CRN, UL 등 산업별 인증도 확보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장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배관에서 유체가 새지 않도록 연결하고, 필요한 압력과 유량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정밀 유체제어 기술에 기반한다. 사용되는 유체의 압력·온도·청정도와 산업별 안전기준을 고려해 제품을 설계하고, 정밀가공·표면처리·조립·검사까지 일관되게 관리한다.

[그림 3] 동사의 튜브 피팅



정밀 피팅 체결·가공 기술은 동사의 기본적인 기술 기반이다. S-LOK 튜브 피팅은 몸체, 너트, 2개의 패럴로 구성되며, 너트를 조일 때 두 개의 패럴이 튜브를 압착해 별도 용접 없이 기계적으로 밀폐하는 구조이다. 이때 단순히 강하게 조이는 것이 아니라 가공공차와 각 부품의 경도를 정밀하게 관리해 튜브의 기계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누설을 방지해야 한다. 동사는 정밀가공 기술에 패럴·나사 자동검사와 스웨징(Swaging) 유닛 설계·제작 기술을 결합하고 있으며, 규격별 튜브를 일정한 압력으로 자동 압착하는 스웨징 기술을 통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조립 품질의 재현성을 높이고 있다.

자료: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고신뢰성 밸브 설계 기술은 석유화학, 조선·해양 및 수소 분야처럼 압력과 온도 조건이 까다로운 유체를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다. 동사는 하나의 밸브에서 복수 유로를 차단·배출하는 DBB(Double Block & Bleed) 밸브, 과도한 압력을 자동 방출하는 안전·릴리프 밸브, 수소용 초고압 밸브 및 극저온 유체용 밸브 등의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밸브는 내부 유로와 시트 구조, 밀폐부 및 작동부의 설계에 따라 누설 여부와 안전성이 결정되므로, 동사의 기술은 단순 형상가공보다는 압력·온도별 유체 거동을 고려한 구조설계와 진동·피로·파괴·고온·저온 조건의 성능검증을 함께 수행하는 데 특징이 있다.

UHP 고청정 제조기술은 반도체 공정에 대응하는 기술이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는 미량의 오염 물질도 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팅과 밸브 내부에 이물질이 남거나 표면이 거칠어서는 안 된다. 동사는 이를 위해 고청정 전해연마, 정밀 세정 및 특수 용접 기술을 확보하고, 복잡한 밸브 내부 유로까지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중 유로 전해전극 설계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즉 UHP 제품은 밀폐성과 내구성에 표면 청정도와 오염관리 능력까지 추가되며, 동사가 반도체용 고부가 제품으로 기술 범위를 확장하는 기반이 된다.

정밀 배관 모듈 제작 기술은 개별 피팅과 밸브를 공급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고객 설비에 필요한 유체배관을 하나의 기능 단위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피팅·밸브·튜브 등을 정해진 공간 안에 배치하고 연결한 뒤 전체 유로의 누설과 작동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부품별 정밀도뿐 아니라 배관 설계, 조립, 용접 및 품질검증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 동사는 이를 수소·연료전지용 플러밍 모듈과 ESS용 유체제어·소화설비 모듈 등으로 확대하고 있어, 기술 경쟁력의 방향도 고압·고청정 환경에 대응하는 유체제어 시스템 통합으로 넓어지고 있다.

■ 연구개발 역량

동사의 연구개발은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보다 실제 고객 설비에 적용 가능한 피팅·밸브를 설계하고 산업별 성능·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개발형 연구개발의 성격이 강하다. 2013년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해 왔으며, 2026년 기업부설연구소로 확대하였다. 연구조직은 계장, UHP, 배관모듈, 기술지원 등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계장제품과 신성장 제품의 개발 기능을 구분하면서도 설계와 현장 기술지원을 연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연구개발의 흐름은 동사의 사업영역 확대와 연계되어 있다. 초기에는 DBB 밸브, 매니폴드, 단일 페럴 튜브 피팅, 계장용 밸브 및 극저온 밸브 등 기존 석유화학·조선·플랜트 시장에 필요한 제품개발이 중심이었다. 이후 UHP 피팅, 다이어프램 밸브, 전용 체크밸브 등 반도체용 고정정 제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했고, 최근에는 고압수소용 니들밸브, 안전밸브, 수소용 모듈과 ESS용 장치, 자동 스웨이징 유닛 등으로 개발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과제 구성은 기존 제품의 세부 규격을 추가하는 것뿐 아니라 적용 산업에 따라 청정도·압력·온도·안전성 요구가 다른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객 요구와 연구개발을 직접 연계하는 능력도 확인된다. 항공용 배관 피팅의 국산화를 위한 제품개발과 시험·평가·검증 및 고객 표준 등록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수소·연료전지와 ESS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관련 피팅·밸브·모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결과를 단순 시제품 제작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시험·승인 및 공급자격 확보로 이어가려는 구조이며, 산업용 유체제어 부품의 특성상 이러한 인증·검증 대응 능력은 제품 상용화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이다.

■ 지식재산권 현황

동사의 지식재산권은 유체제어 제품의 안전성·기능성 개선과 안정적인 생산과 조립을 지원하는 생산공정 자동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중 볼밸브, 안전 매니폴드 밸브, 마스터 키 잠금식 밸브, 팝핑 기능을 구비한 릴리프 밸브는 유로 제어, 안전한 밸브 작동, 압력 해소 등 밸브의 기능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기술이고, 튜브-피팅 결합용 스웨이징 머신 특허는 설정된 압착조건에 따라 튜브와 피팅을 자동 결합해 작업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제조공정 기술이다.

특히 스웨이징 머신 특허는 동사의 생산기술이 자동화 설비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튜브를 정위치에 고정한 뒤 목표 압력과 실제 압착압력을 비교해 공정을 자동으로 종료하고, 지그 교체를 통해 서로 다른 규격의 튜브를 하나의 장비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페럴 체결 품질의 균일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업시간과 작업자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핵심 제품인 튜브 피팅 생산·조립 공정과 연결된다. 또한 S-LOK, S-detec 등 제품 브랜드와 누설검사용 제품에 대한 등록상표도 보유하고 있어 제품기술과 브랜드 자산을 병행해 관리하고 있다.

동사는 다양한 산업의 공급요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안전·제품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ISO 9001, ISO 14001 및 ISO 45001을 기반으로 품질·환경·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DNV, ABS, KR, CCS, NK, LR, BV 등 주요 선급기관의 형식승인을 확보해 관련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수소·가스 분야에서는 ECE R110, ISO 15500, NGV 3.1 및 KGS 수소자동차 연료공급 부품 인증을,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CRN과 UL 인증을 확보했으며, ASTM F1387 시험과 KGS·KCS 안전밸브 인증 등을 통해 제품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품질관리 수단을 넘어 산업별 공급자격 확보와 고객 검증을 지원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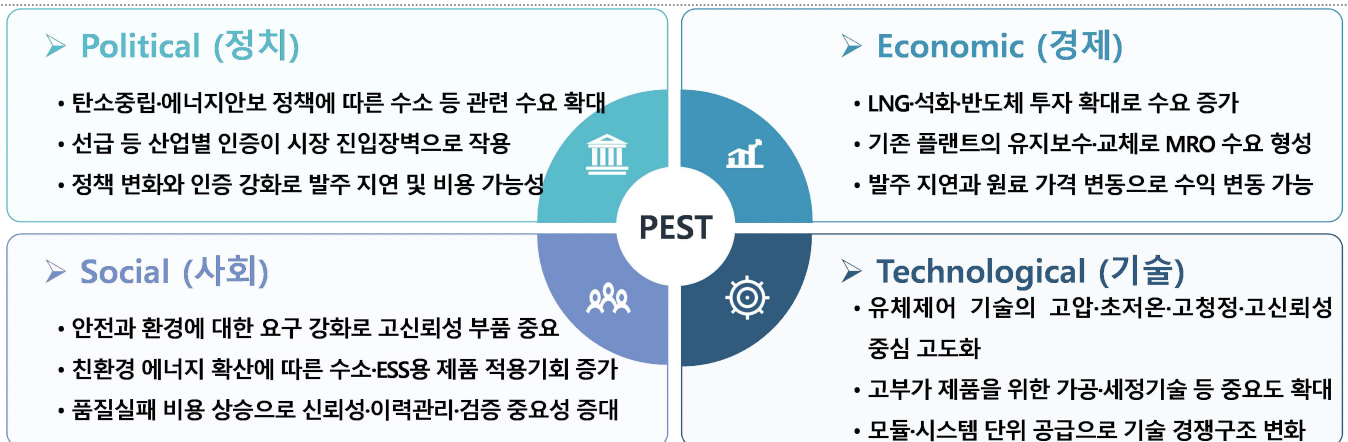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각국의 수소·연료전지 및 청정에너지 육성정책은 사업영역 확대에 긍정적 요인이다. 수소 인프라와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고압용 피팅·밸브 및 플러밍 모듈의 신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으며, ESS 보급 확대와 화재안전 규제 강화도 관련 유체제어 부품의 적용 기회를 높인다. 반면 수소산업은 정책 방향과 보조금, 인프라 구축계획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정책 불확실성이 실제 발주 시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요 적용산업에서 산업별 인증이 시장 진입요건으로 작용해 기존 인증 보유기업에 유리한 반면, 신규 제품 개발 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동사의 수요는 정유·석유화학, 오일·가스, LNG, 반도체 등 대규모 설비투자 산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전방산업 투자의 영향을 받는다. LNG 및 에너지 프로젝트와 반도체 생산설비 증설이 확대될 경우 계장용 피팅·밸브와 UHP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기존 플랜트의 유지보수·교체·증설 수요는 신규 프로젝트 변동성을 보완한다. 반면 프로젝트 지연이나 설비투자 축소는 단기 매출 변동성을 높일 수 있고, 스테인리스강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니켈·크롬 등 금속가격의 영향을 받는 점도 원가 부담 요인이다. 따라서 전통산업의 MRO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반도체 UHP, 수소 및 ESS 등으로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흐름은 고신뢰성 유체제어 제품을 공급하는 동사에 우호적이다. 석유화학·가스·수소·ESS 등의 설비에서는 작은 누설이나 밸브 오작동도 화재, 폭발 및 설비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제품 신뢰성, 이력관리, 인증 및 공급실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어 수소·연료전지와 ESS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화석에너지 플랜트용 피팅·밸브 중심의 수요가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용 부품·모듈 시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질수록 품질사고가 고객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 지속적 품질관리와 검증체계 유지가 중요하다.

목표시장의 기술적 요구는 고압·초저온·고청정·고신뢰성 및 모듈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UHP 가스의 오염 최소화를 위한 전해연마·고청정 세정·특수용접 기술이 중요해지고, 수소 분야에서는 초고압 환경에서 누설을 억제하는 밸브 설계와 안전성 검증 능력이 요구되며, 조선·해양에서는 극저온 대응기술이 필요하다. 동사는 정밀 가공·피팅 체결, 고신뢰성 밸브 설계, UHP 청정 제조 및 배관 모듈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자동 스웨징과 검사기술을 통해 생산품질의 재현성도 높인다. 향후 경쟁력은 산업별 요구에 맞는 고기능 제품을 개발하고 모듈 및 시스템 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신축공장 투자와 사업 다변화로 성장 기반을 확대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477.5억 원에서 2024년 485.4억 원, 2025년 632.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력인 피팅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밸브 회복 및 모듈·기타 제품의 매출 확대가 외형 성장에 기여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영업이익이 2023년 61.9억 원에서 2024년 49.2억 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 97.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도 10.1%에서 15.4%로 상승하며 이익창출력이 강화되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460.3억 원, 영업이익 118.1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률이 25.7%까지 상승하는 등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졌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2025년 신축공장 및 신규사업 투자로 부채비율이 105.7%까지 상승하였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유동비율 264.7%, 부채비율 64.3%, 자기자본비율 60.9%를 기록하며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 주력 피팅 매출 안정성과 모듈의 고성장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477.5억 원, 2024년 485.4억 원, 2025년 632.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쳤으나 2025년에는 30.2% 증가하며 외형 성장 속도가 크게 높아졌다. 주력 피팅과 밸브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유지되었으나, 2025년에는 기존 주력제품 성장과 함께 모듈 및 기타 제품의 매출 확대가 더해지며 전체 매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피팅 매출은 2023년 310.6억 원에서 2024년 325.8억 원, 2025년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동사의 핵심 매출 기반을 유지하였다. 밸브 매출은 2023년 95.5억 원에서 2024년 94.2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5년 113.1억 원으로 반등하며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모듈 및 기타 매출은 2023년 43.1억 원, 2024년 39.2억 원에서 2025년 85.6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모듈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가 2025년 외형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매출 역시 2023년 22.3억 원, 2024년 19.8억 원, 2025년 26.6억 원으로 2024년 감소 이후 회복되었으며, 기타 매출은 같은 기간 6.0억 원, 6.4억 원, 6.8억 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다.

2026년 상반기 매출은 460.3억 원을 기록하였다. 제품별로 튜브 피팅 196.4억 원, 모듈 66.0억 원, 기타 제품 88.4억 원을 기록했고, 특히 모듈은 상반기에만 2025년 연간 매출 44.1억 원을 크게 상회하였다. 동사는 2025년을 기점으로 외형 성장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기존 피팅·밸브뿐 아니라 모듈과 기타 제품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제품군의 가동률 상승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반도체 및 ESS를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현재의 생산 및 판매 흐름이 유지될 경우 추가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개선

동사의 3년간 영업이익은 2023년 61.9억 원, 2024년 49.2억 원, 2025년 97.5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각각 13.0%, 10.1%, 15.4%로, 2024년에는 원재료비와 판매비용 증가 영향으로 수익성이 둔화되었으나 2025년에는 큰 폭으로 회복되었다. 매출원가는 2023년 375.8억 원, 2024년 388.0억 원, 2025년 483.4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매출원가율은 각각 78.7%, 79.9%, 76.5%로 2025년 개선되었다. 판매비율 역시 2024년 9.9%에서 2025년 8.1%로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은 2025년 14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8%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는 2023년~2024년 3.8억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4.6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매출 대비 비율은 0.7~0.8%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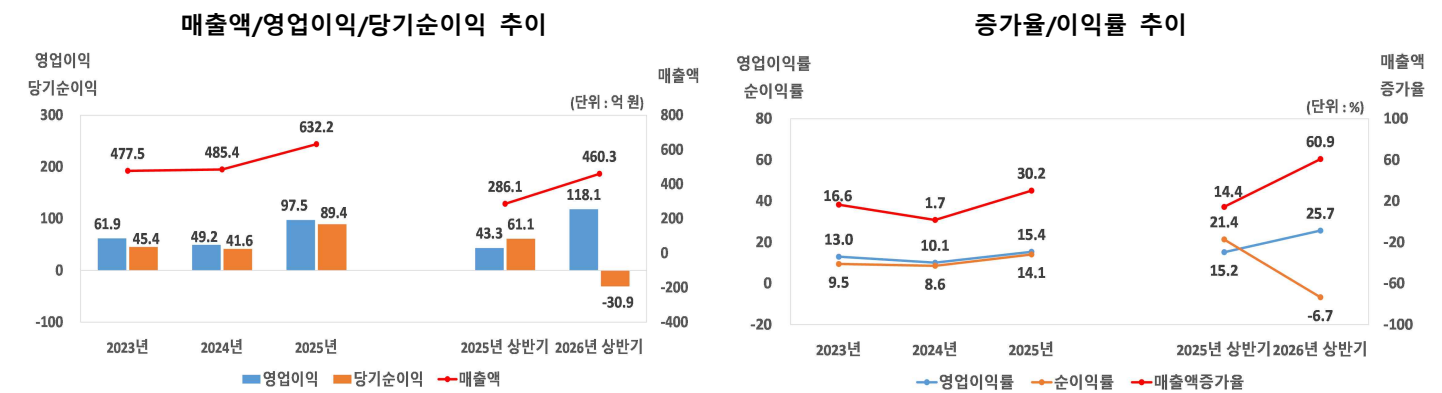
한선엔지니어링(452280)

동사의 3개년 당기순이익은 2023년 45.4억 원, 2024년 41.6억 원, 2025년 89.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순이익률은 각각 9.5%, 8.6%, 14.1%를 기록하였다. 2025년에는 매출 증가와 함께 매출원가율도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도 순이익 증가에 일부 기여하였다.

2026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 118.1억 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이 25.7%까지 상승하였으며, 금융비용 영향으로 당기순손실 30.9억 원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2025년 영업이익이 회복되었고, 2026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가동률 상승과 매출 확대가 지속될 경우 본업 중심의 수익성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성장투자로 확대된 자산 기반

동사의 3개년 자산총계는 2023년 721.4억 원, 2024년 789.9억 원, 2025년 1,406.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25년 자산은 전년 대비 78.0% 증가했으며 본사 신축공장 건설에 따른 건설중언자산 증가, 사업 확대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 차입금 조달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비유동자산은 2024년 377.3억 원에서 2025년 720.2억 원으로 확대되어 생산설비 투자의 영향으로 유형자산 증가가 반영되었다. 유동비율의 경우 2023년 452.5%, 2024년 351.1%, 2025년 176.5%를 기록하였다.

부채총계는 2023년 172.2억 원, 2024년 200.4억 원에서 2025년 722.5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31.4%, 34.0%, 105.7%로 상승하였다. 2025년 말 차입금과 사채는 단기차입금 64.0억 원, 장기차입금 321.7억 원, 전환사채 210.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95.7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신축공장 건설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대규모 투자 이후 실제 매출 및 영업현금흐름 창출로 이어진다면 재무안정성 개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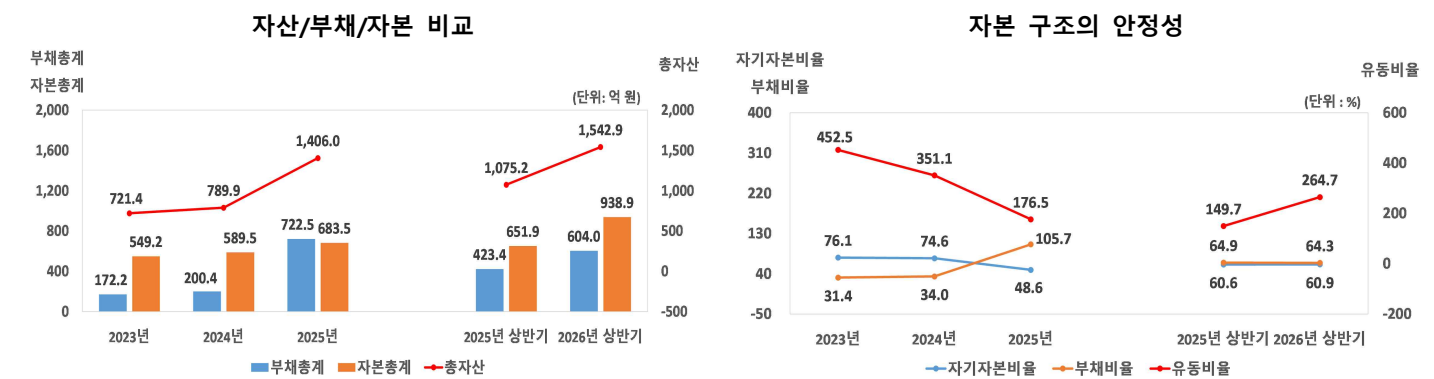
자본총계는 2023년 549.2억 원, 2024년 589.5억 원, 2025년 683.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 89.4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익잉여금 증가가 자본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76.1%, 2024년 74.6%에서 2025년 48.6%로 하락하였으며, 2025년 신축공장 건설 및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차입금과 전환사채 조달로 부채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선엔지니어링(452280)

2026년 상반기에는 유동비율 264.7%, 부채비율 64.3%, 자기자본비율 60.9%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유동비율 149.7%, 부채비율 64.9%, 자기자본비율 60.6%) 대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되었다. 2025년에는 신축공장 건설과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외부자금 조달로 부채 부담이 확대되었으나, 2026년 상반기 전환권 행사 등에 따른 자본 확충과 부채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단기 지급능력과 자본구조가 동시에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향후 신축공장 가동과 생산 확대가 매출 및 영업현금흐름 증가로 이어질 경우 외부자금 의존도를 낮추면서 재무안정성을 추가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매출액	477.5	485.4	632.2	286.1	460.3
매출액증가율(%)	16.6	1.7	30.2	14.4	60.9
영업이익	61.9	49.2	97.5	43.3	118.1
영업이익률(%)	13.0	10.1	15.4	15.2	25.7
순이익	45.4	41.6	89.4	61.1	-30.9
순이익률(%)	9.5	8.6	14.1	21.4	-6.7
부채총계	172.2	200.4	722.5	423.4	604.0
자본총계	549.2	589.5	683.5	651.9	938.9
총자산	721.4	789.9	1,406.0	1,075.2	1,542.9
유동비율(%)	452.5	351.1	176.5	149.7	264.7
부채비율(%)	31.4	34.0	105.7	64.9	64.3
자기자본비율(%)	76.1	74.6	48.6	60.6	60.9
영업현금흐름	72.3	22.0	14.3	13.9	54.2
투자현금흐름	-151.3	-48.2	-347.1	-270.5	-156.6
재무현금흐름	125.5	39.6	468.7	207.0	16.1
기말현금	72.5	85.9	221.5	36.3	135.3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매출은 2023년 477.5억 원에서 2025년 632.2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6년에는 920.5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6년 실적 성장은 기존 주력인 피팅·밸브의 안정적인 증가와 함께 모듈 및 기타 부문의 급격한 외형 확대가 결합되는 구조로 전망되고, 동사의 사업구조도 개별 피팅·밸브 중심에서 수소·연료전지 및 ESS 등에 적용되는 모듈을 포함한 유체제어 솔루션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피팅 부문 매출은 2024년 325.8억 원에서 2025년 400.0억 원으로 성장 후, 2026년에는 417.5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튜브 피팅은 정유·석유화학, 오일·가스, 조선·해양 등 기존 산업의 프로젝트 및 MRO 수요를 기반으로 핵심 매출원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또한 반도체 생산설비 확대에 대응한 UHP 피팅과 수소·연료전지용 제품의 적용 확대가 추가적인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예상 증가폭은 이전보다 완만해 기존 계장용 피팅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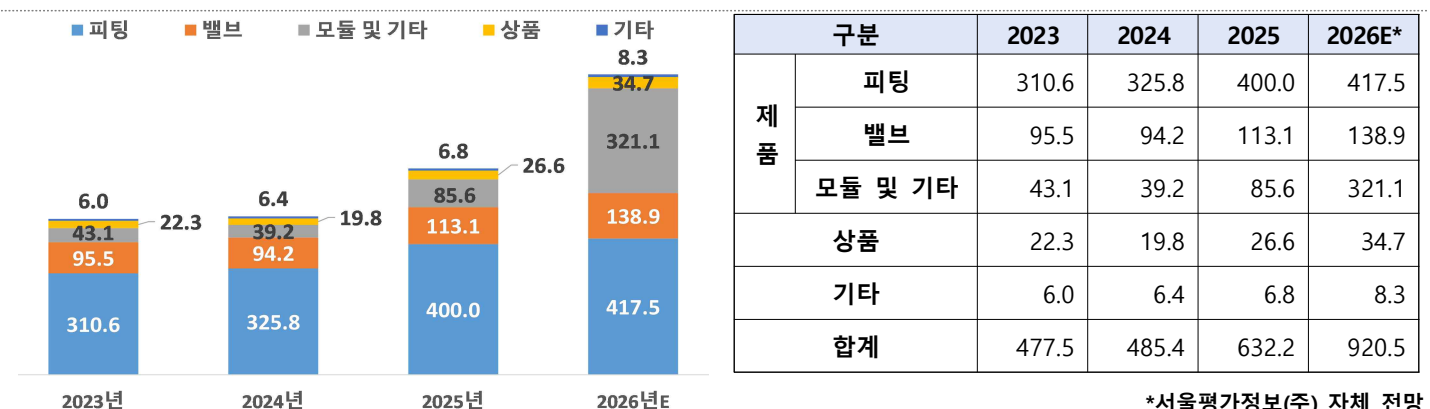
밸브 부문 매출은 2024년 94.2억 원에서 2025년 113.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에는 138.9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유체차단·조절 및 보호밸브 수요에 더해 DBB 밸브, 안전·릴리프 밸브, 반도체용 UHP 밸브, 수소용 초고압 밸브 등 고기능 제품의 공급 확대가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사가 축적한 산업별 인증과 프로젝트 납품실적은 조선·해양, 수소 및 특수가스 분야에서 신규 제품의 고객 승인과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모듈 및 기타 부문 매출은 2024년 39.2억 원에서 2025년 85.6억 원으로 확대됐고, 2026년에는 321.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사가 수소·연료전지용 플러밍 모듈과 ESS 관련 유체제어·소화설비 등 여러 부품을 조립한 모듈 단위 제품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흐름과 연결된다. 2026년 예상 기준 모듈 및 기타 부문은 피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사업부문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며, 예상 실적이 현실화될 경우 동사의 외형 성장뿐 아니라 매출구조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과 기타 부문도 2026년 각각 34.7억 원과 8.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실적은 기존 피팅·밸브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가운데 모듈 사업이 추가 성장을 이끄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듈 부문은 고객사의 설비투자 및 프로젝트 일정, 납품 시점에 따라 실적이 변동할 수 있다. 종합하면 동사의 향후 실적은 기존 계장용 피팅·밸브의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UHP, 수소·연료전지 및 ESS 관련 고부가 제품과 모듈의 공급을 얼마나 계획대로 확대하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서울평가정보(주) 자체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반도체 UHP·수소·연료전지·ESS 및 모듈 사업으로 성장축을 확대하는 전환기

동사는 반도체 UHP, 수소·연료전지, ESS 및 모듈 사업을 보다 구체적인 성장축으로 확장하고, 신축공장 사용승인과 기업부설연구소 확대 등을 통해 생산·연구개발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단품 피팅·밸브 중심에서 고청정·고압 제품과 플러밍·소화설비 모듈 등 시스템 단위 공급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고, 산업별 인증과 해외 벤더 등록도 확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LNG·정유·석유화학·조선·해양의 프로젝트 및 MRO 수요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UHP, SOFC 중심의 수소·연료전지, ESS 용 유체제어 부품과 모듈의 고객 채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성장요인이 될 전망이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의 사업구조는 계장용 피팅·밸브 제조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신성장사업의 성격이 실제 공급 확대와 생산기반 확충 단계로 구체화되었다. 2025년에는 보유한 설계·제조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반도체 UHP, 수소·연료전지 및 ESS가 실제 제품 공급과 고객 확대를 추진하는 핵심 성장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제품 측면에서는 단품 피팅·밸브 중심의 사업에서 고청정·고압 제품과 모듈 단위 공급으로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UHP 피팅과 밸브를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소 분야에서는 고압용 유체제어 부품뿐 아니라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에 적용되는 플러밍 모듈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ESS 분야에서도 배관부품 공급을 넘어 배터리 랙과 직분사 소화시스템의 유로를 구성하는 피팅·밸브 및 모듈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동사의 성장전략은 계장부품의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식에서 산업별 요구조건에 맞춘 고부가 제품과 조립모듈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6년 3월 녹산 신축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서 투자가 실제 생산체계 전환 단계로 이동하였고, 연구개발 전담조직 역시 기업부설연구소로 확대되는 등 생산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신축공장은 단순 공간 확대보다 생산효율과 공급 안정성, 향후 모듈 및 신규 제품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시장과 제품 인증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 조선·해양 선급과 수소·가스 관련 인증에 더해 킥커넥터와 볼밸브의 UL 인증을 확보하고, 중동 에너지 기업의 공급업체 등록을 추가하는 등 해외 프로젝트 접근성을 넓히고 있다. 이는 동사의 영업기반이 글로벌 에너지·EPC 프로젝트와 신산업 고객으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계장용 피팅·밸브 시장은 공급자 등록과 제품 승인, 프로젝트 납품실적이 실제 수주에 중요한 만큼 인증 확보 자체보다 이를 반복적인 고객 발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향후 전망

동사의 기존 사업은 정유·석유화학, LNG, 조선·해양 등의 프로젝트 및 유지보수 수요를 기반으로 일정한 사업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미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LNG 수출설비가 대규모로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 플랜트의 계측·제어 배관에 사용되는 피팅·밸브의 신규 설치 및 MRO 수요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상황, 건설 일정 및 투자결정 변화에 따라 발주시점이 조정될 수 있어 프로젝트별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UHP 사업은 동사의 신규 성장영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전방산업 환경이 기대된다. SEMI는 인공지능, 고성능컴퓨팅 및 첨단 메모리 수요를 배경으로 글로벌 300mm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특수가스를 안전하고 오염 없이 이송하는 UHP 피팅·밸브의 잠재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 동사는 전해연마, 고청정 세정, 특수용접 등 관련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기존 계장제품보다 높은 청정도와 품질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할 여지가 있다. 다만 반도체 부품은 고객 승인과 품질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시장 성장과 동사의 공급 확대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중장기 성장기회와 단기 불확실성이 공존할 전망이다. 동사는 SOFC용 플러밍 모듈과 수소자동차·충전인프라용 고압 피팅·밸브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다양한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IEA는 저탄소 수소 프로젝트에서 투자결정 지연과 사업 취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비용과 수요처 확보, 인프라 및 제도 문제가 단기 성장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 분야에서는 시장 전체의 장기 성장성보다 이미 고객 승인을 확보했거나 구체적인 공급처가 존재하는 연료전지·차량·인프라용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SS 분야에서는 배터리 대형화와 화재안전 요구 강화가 직분사 소화시스템용 피팅·밸브 및 모듈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동사는 기존 유체제어 기술을 활용해 소화약제의 이동·분사·제어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어 기존 계장시장과 기술적 연속성이 높다. 특히 모듈 사업은 개별 피팅이나 밸브보다 설계·조립·품질검증 범위가 넓어 고객 채택이 확대될 경우 동사의 사업구조를 단품 중심에서 시스템 구성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나 고객의 설비투자 일정에 따라 발주 규모와 시점이 변동할 수 있어 고객 및 적용처 다변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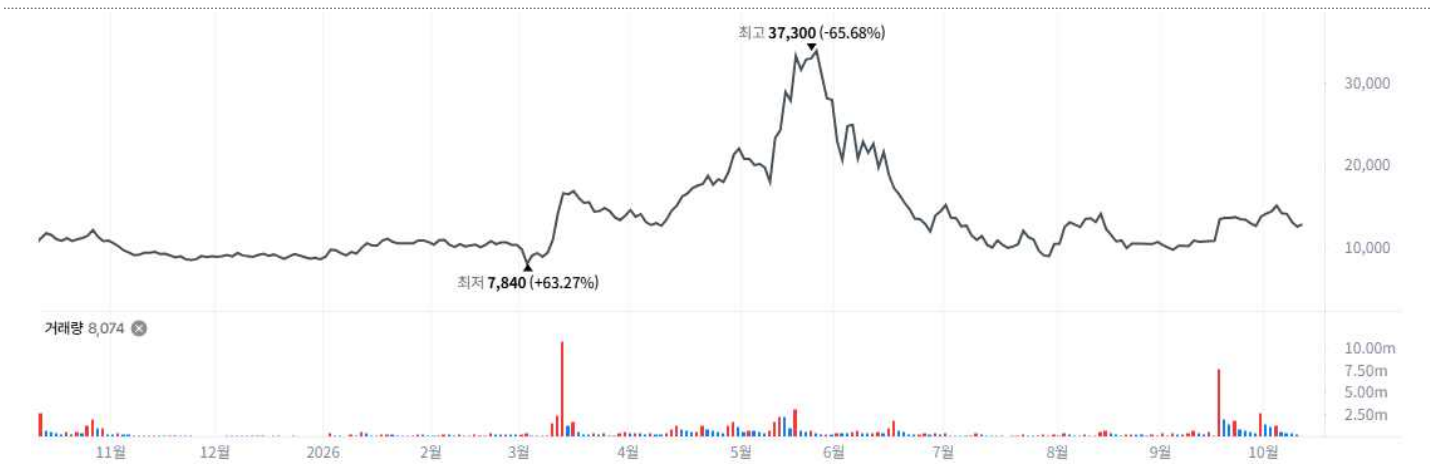
종합하면 동사는 계장용 피팅·밸브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UHP, 수소·연료전지, ESS 및 모듈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구체화하는 전환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이 신사업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2025년 이후에는 신규 공장 가동, 제품 인증 확대 및 실제 고객 공급을 통해 해당 투자를 사업성으로 연결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향후에는 신축공장의 안정적인 가동과 생산효율 확보, UHP 및 모듈 제품의 고객 승인 확대,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의 공급자격 추가 확보가 성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면 수소 프로젝트 지연, 전방산업 설비투자 변동, 글로벌 전문업체와의 경쟁 및 장기간 소요되는 고객 승인절차는 성장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

한선엔지니어링(45228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10.1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한선엔지니어링	X	X	X